

# 멋진 新世界



元應淳  
(경희대 영문학과 교수)

오늘날 첨단과학이 지향하는  
「멋진 신세계」는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아름다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라야 한다.  
현대인들이 오늘의 과학기술을  
도외시하고 무관심할때  
그것이 만들어낼 암흑의 세계를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연이 주는 학문은 아름답다,  
우리의 간섭하는 지식은  
추하게 만든다, 사물의 아름다운 형상을 —  
우리는 분석하므로 생명을 죽인다.  
(W. 워즈워드; 뒤버뀐 울법)

나는 하늘 높이 솟은  
밤의 피라미 아래에서 회전하며 환희를 꿈꾸며  
황홀한 잠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속삭이네.  
(P.B. 셸리; 해방된 프로메테우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과학이 가져다 줄 멋진 신세계(新世界)를 꿈꾸어 왔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템페스트」에서 「미란다」가 언급했고, 현대의 작가 헉슬리(Huxley)가 보여주는 「멋진 신세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잠깐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꿈꾸어 온 신세계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과학은 종교의 세계와 충돌을 빚게 된다.

## 과학은 종교의 세계와 충돌

중세에 있어서 과학은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 다닌다는 엑소시스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동거해 왔다. 16세기에 오면 과학화된 엑소시스트들과 만나게 된다. 하비(Harvey)와 베이컨(Bacon)이 그 실례의 인물들이다.

하비는 근대과학의 정신을 구현한 영국 왕실의 주치의사였다. 그는 마녀라는 낙인찍힌 이단자의 별거벗은 몸에 바늘을 찌르면서 마녀의 표식(바늘로 찌러도 아

프지 않고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을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하비 자신이 제창한 혈액순환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또한 당시 법관이며 경험철학자이기도 한 베이컨이 피의자가 마녀라는 것이 판명되면 무서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베이컨은 과학(Science)에 있어 이성을 강조하면서 학문을 분류했으며, 「학문의 진보」나 「새로운 조직」 등의 저서를 통하여 과학의 연구방법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대학자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에서 이성과 과학의 시대를 연상해 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생명과 아름다움의 존재

그러면 서두의 영시로 시선을 옮겨보자. 수리철학자로 유명한 화이트헤드(Whitehead)의 저서 「과학과 근대세계」의 「낭만주의 반동」이란 글 속에서 인용한 시행들이다. 그는 지식인들의 사상적 충돌과 대립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형태의 문학인 시와 희곡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화이트헤드는 과학사상을 언급하면서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들 가운데서 워즈워드와 셸리의 시를 비평했다. 그는 이 두 시인들이 한결같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되어 있었다고 평하면서 전자 워즈워드는 과학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의 천재성이 약화되었으며, 후자 셸리는 과

학을 사랑하고 과학이 암시하는 여러 사상을 시로 표현한 시인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필자는 화이트헤드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학사상의 핵심이 생명과 아름다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이 주는 학문은 아름답다 / 우리의 간섭하는 지식은 / 사물의 아름다운 형상을 추하게 만든다 / 우리는 분석하므로 죽인다'는 표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과학성에 맹목적인 집착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셸리의 시극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의 제4막에서 '대지'와 '달'이 정확한 과학의 언어로 묘사되고 있다.

/밀폐될 수 없는 수증기와도 같은 환희!  
/라는 표현은 과학상의 기체의 팽창력을 모르는 시인은 도저히 쓸 수 없는 표현이다. 또한 서두의 시, /나는 하늘 높이 솟은 / 밤의 피라밋 아래에서 회전하며 환희를 꿈꾸며 / 황홀한 잠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속삭이네 / 와 같은 시귀절은 명확한 기하학적 도형을 강의하는 시간에 종종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할 도형과 같은 것을 눈앞에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며, 그 증거로 밤의 피라밋을 둘러싼 빛의 시적영상을 부여하고 있는 마지막 시행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평하고 있다. /마치 어여쁜 여인의 그늘에 누워 / 빛과 따사로운 기운이 에워싸는 꽃다운 사랑의 꿈에 가볍게 한숨짓는 젊은이인 양 /

다음으로 메어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얽힌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이 소설은 괴기소설로 알려져 있지만 과학과 생명의 본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작품이다. 1816년 여름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에 위치한 호숫

가의 한 산장에 휴가를 즐기기 위해 찾아 온 이들은 바이런(George G. Byron)과 그의 애인 클레어 코드윈, 시인 셸리(P.B. Shelley), 그의 아내 메어리 셸리(Mary Shelley), 그리고 의사 폴드리 등 다섯명이었다. 이들은 여름장마로 연일 산장에서만 지내게 되자 시인 바이런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각자 괴기담을 써서 발표하기로 제안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산장에서는 각자가 지어낸 괴기담을 들려주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메어리 셸리는 당시의 상황을 「프랑켄슈타인」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이런경과 셸리 사이에 긴 이야기가 오고 갔다. 나는 잠자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다. 이야기 속에는 여러가지 철학상의 문제들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한 그 원리를 발견하고 전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다윈박사의 실험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다윈박사는 '바미세리'(스파게티의 일종으로 스파게티보다 가늘다) 한 조각을 유리컵에 한참 보관해 두었는데, 무언가 이상한 방법에 의해 그것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송장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화학전지(galvanic cell)가 그 증거를 보이고 있다. 아마 생물의 구성 부분을 연결, 조직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윗글에 등장하는 '다윈박사'는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의 조부인 에

라스무스 다윈을 지칭한다. 얼핏 들으면 극히 단순한 괴담 같지만, 과학연구에 대한 그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생명원리의 본질이라든가, 화학전류 따위를 화제로 삼았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글의 서두로 돌아가 결론을 얻고자 한다. 영국의 작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가 던져주는 진정한 의미를 잘 음미해 보아야 한다. 그는 과학세계에 대한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기 이전에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의 혼란과 무질서를 먼저 인식하고 나서 「멋진 신세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 아름다운 가치추구서 비롯

그가 미워하는 것이 결코 과학의 진보가 아니라, 이 과학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이기심인 것이다.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이 지향하는 멋진 신세계는 참으로 문자 그대로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아름다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라야 한다.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와 셸리의 시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참된 메시지를 다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이 오늘의 과학기술을 도의시키고 무관심하게 될 때 그것이 만들어 낼 가공할 암흑의 세계를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시인들과 작가들은 한결같이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파우스트가 메피스트의 유혹에 빠져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지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멋진 신세계」를 향유할 주인공들은 반드시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⑤7